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2011년 미국 경제, 낙관론 확산

□ 최근 각종 경제지표 호전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속 기대감 등으로 2011년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며,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전망 수치를 상향 조정함.

-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,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, 소비자 기대 회복 등, 경제지표가 호전되고, 대기업들의 이익 증가와 함께 다우존스지수도 2년래 최고치를 기록함.
- 연준은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국채 매입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으며, 오바마 대통령도 8,58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조치에 합의하는 등 경기부양조치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경제 여건 개선과 함께 경제학자들은 경제전망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, 실업률의 급속한 하락은 힘들겠지만, 2011년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건전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.

□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며, 높은 실업률과 지방정부 부채증가 우려 등 경기회복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함.

- 케이스-실러 주택가격지수는 2010년 9월 현재 147.5로 2009년 4월 139.3을 기록한 이후 상승전환 하였으나, 2006년 7월 고점대비 28.6% 하락한 상태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.
- 12월에도 9.8%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실업률은 내년에도 9%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,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경기회복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됨.
- 노스웨스턴 대학의 로버트 고든(Robert J. Gordon)교수는 지방정부의 부채증가와 보건비용 증가 등 장기적인 재정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함.

(New York Times, 12/23)